

원대 기녀 작가의 詩와 散曲 주제 고찰

윤혜지* · 김영미**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원대 기녀의 삶
3. 원대 기녀 작가의 시
4. 원대 기녀 작가의 산곡
5. 나오는 말

국문초록

원대의 기녀 중에는 문학적 재주가 있는 藝人들이 매우 많았는데, 이들 중에는 직접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기녀들도 있었다. 이 작품들은 원대 기녀들의 삶의 애환을 담고 있어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여기저기 산재되어 그동안 중국문학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원대는 재주 있는 기녀들이 문인사대부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았고, 민간문학의 발전과 함께 통속적 표현이 허용되어 기녀들도 다양한 장르에서 문학의 창작자로 나설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흩어져 있는 원대 기녀들의 시와 산곡을 찾아 작품의 내용과 주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이들 작품은 기녀들의 삶의 애환과 이로 인한 절망과 한탄의 심정을 주요 주제로 하며, 통속적이고 직설적 어휘로 창작의 목적성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특징을 지닌다.

키워드: 원대, 여성작가, 기녀, 시, 산곡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연구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교육과 강사

1. 들어가는 말

원대는 중국 최초의 이민족 왕조가 세워졌던 시대로, 이전 시기까지 정치와 사회의 중심이었던 한족 사대부 지식인들이 하층계급으로 떨어지고, 문학과 예술 방면에서도 북방의 음악을 기초로 한 雜劇과 散曲은 흥성하고 한족의 정통문학 양식인 詩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또한 원대는 송 이래로 극단적인 정절 숭배가 이루어졌던 시기로 여성들은 병이 나도 남성 의원에게 치료받지 않았으며¹⁾ 절개를 지키기 위해 자결하는 여성들도 많아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고대 중국사회의 봉건예교가 엄격해질수록 기녀의 숫자도 늘어났다는 점이다.²⁾ 명·청대에는 ‘여성은 재주가 없는 것이 덕이다.’는 말이 있었는데, 陳東原은 『中國婦女生活史』에서 이 말이 생기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원대 기녀 중에 詩詞로 유명한 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³⁾ 즉 시를 짓고 재주를 뽐내는 것은 기녀가 하는 일이며, 여성이 재주가 있으면 박복하게 산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듯 원대의 기녀 중에는 문학적 재주가 있는 藝人들이 매우 많았는데, 이 중에는 직접 詩와 散曲을 창작하는 기녀들도 있었다. 이 작품들은 원대 기녀들의 애환을 담고 있어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⁴⁾ 여기저기 산재되어 오래도록 중국 문학사에서 소외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⁵⁾ 본 논

1) 원대 明善이 지은 『節婦馬氏傳』에 따르면 ‘大德 7년(1303) 10월에 마씨의 가슴에 상처가 생겨 사람들이 의원을 부르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마씨는 “저는 楊氏가문의 과부입니다. 목숨을 잃을지언정 남성에게 병을 치료받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결국 그녀는 죽고 말았다.’ 陳東原, 『中國婦女生活史』, 臺北: 臺灣商務, 1994, 177쪽.

2) 로베르트 반 홀릭은 『中國性風俗史』에서 원대는 정복자의 통치 아래 집안의 여자들을 지키기 위해 유가적 규칙들이 보다 공고화되었는데, 기녀의 경우만 예외였으며, 이는 사회가 욕망을 만족시키는 직무를 기녀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R.H. 반홀릭·장원철 옮김, 『中國性風俗史』, 서울: 까치, 1993, 314-315쪽.

3) 陳東原, 전계서, 198쪽.

4) 唐詩·宋詞·元曲이라는 중국문학사의 고전적 명제는 모두 그 시대 기녀들에게 크게 힘입고 있다. 권응상, 『멀티엔터테인먼트로서의 중국 고대 기녀』, 서울: 소명출판, 2014, 210쪽.

5) 당대와 송대, 그리고 명대의 기녀 작가와 詩詞작품에 대해서는 권응상과 김수희가 연구

문에서는 원대 기녀들의 詩와 散曲을 대상으로,⁶⁾ 작품의 내용과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詩는 대부분이 七言絶句로 총 10인의 기녀 작가 16수의 작품이 오늘날까지 전한다.⁷⁾ 散曲은 元代에 새롭게 일어난 문학 양식으로 단일곡인 小令과 모음곡인 套數로 구분하는데, 『全元散曲』에는 총 9명의 기녀 작가 10수의 산곡 작품(小令7수, 套數3수)이 수록되어 있다.⁸⁾ 시와 산곡을 동시에 창작한 기녀 작가는 劉燕歌 1인뿐이었는데, 이는 아마도 원대 기녀 작가들이 전문적인 문학 창작자로 활동하지는 않았고, 작품집 또한 남기지 않아 작품의 극히 일부만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선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모두 연회의 기록이나 필기 소설, 혹은 기녀의 일례를 수록한 저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제3자에 의해 요행으로 기록·전수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작품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원대의 기녀들의 삶이 어떠한지 간략하게 알아보자.

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당대는 52명의 기녀 작가가 252수의 시작품을 남겼고, 송대는 52명의 기녀 작가가 104수의 시작품을 남겼다. 또한 명대는 78명의 기녀 작가가 359수의 시작품을 남겼다. 권웅상, 「송대 기녀문인과 그 문학사적 성격」, 『중국어문학』 53권, 영남중국어문학회, 2009, 15쪽. 김수희, 「명대 기녀사에 나타난 기녀 모습과 그 의미」, 『중국어문학지』 37권, 중국어문학회, 2011, 315쪽.

6) 원대 기녀 작가의 작품 중 詞작품은 『剪燈新話』에 실린 羅愛卿의 詞작품 2수(「齊天樂」, 「沁園春」)를 제외하고는 모두 散曲의 小令 작품과 중복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산곡은 시와 사를 계승한 운문 양식으로 특히 산곡 중 소령은 사와 구분하기 힘들다. 더욱이 기녀 작가의 작품은 한 작품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더 구분하기 힘들고 따라서 사집과 산곡집에 동시에 수록된 경우가 많다.

7) 顧嗣立的 『元詩選』에는 340명의 원대 작가가 실려있고 이외에 추가로 50여 명의 작가가 더해져 총 400여 명의 원대 작가와 수천 수의 작품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沈祥源編著, 『宋元文學史』,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09, 299쪽.

8) 隋樹林的 『全元散曲』에는 212명의 작가의 작품으로 小令 3,853수와 套數 457수가 수록되어 있다. 작가의 대부분은 하급 관리이거나 예인, 신분미상인 자들이며, 이들 가운데 여성작가의 비율은 극소수이고 그나마도 妓女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 원대 기녀의 삶

원대에는 妓業이 매우 성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전 시대보다 상업적 색채도 더욱 강화되었다.⁹⁾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의하면 元代의 기녀는 그 수가 총 2만여 명에 달했다고 하고,¹⁰⁾ 이러한 상황은 수도였던 大都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수도 성곽 뒤에는 연회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관료 귀족들의 정원에서도 기녀들이 노래하고 춤추었다.¹¹⁾ 원대 관리 중에는 심지어 기녀와의 염문으로 파직된 사람도 있었다.¹²⁾

元代의 기녀들은 크게 재주를 파는 勾欄妓와 몸을 파는 平康妓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둘이 완전히 분리되었던 것은 아니었고 勾欄妓 역시 城市와 瓦肆에서 활동하며 재주와 미모를 팔았다.¹³⁾ 기녀들이 읊는 노래는 酒筵 가운데 창작되었는데, 주로 관료계급들의 술자리나 문인들의 사교 모임에서 즉흥적으로 완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원대에는 한족 출신의 문인들이 관직에 나갈 기회를 잃고 그 지위마저 강등되었기에, 자신의 文才를 드러낼 작품을 창작하며, ‘八倡九儒’¹⁴⁾의 비슷한 처지인 기녀들과 가깝게 지냈다. 따라서 이 시기 한족 문인들의 작품에서는 기녀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시선이 드러나

9) 권응상, 전계서, 213쪽.

10) 마르코 폴로·채의순역, 『동방견문록』, 서울: 을유문화사, 1978, 165쪽.

11) 大都의 散曲 작가인 鮮于伯機(1256-1301)는 집에서 연회를 열어 당시의 명사들을 초청하고, 名妓 曹娥秀에게 술 시중을 들게 하였는데 이에 曹娥秀는 창을 하며 기예를 선보였다. 齋藤茂著·申荷麗譯, 『妓女與文人』, 北京: 商務印書館, 2011, 50쪽.

12) 元代 山東 僉憲 賈伯賢은 기녀 金鶯兒를 사랑하여 西台御史로 제수되었으나 그녀를 잊지 못하고 「醉高歌紅繡鞋曲」을 부쳐 보냈고 이 일이 발각되어 파면당하였다. 李秀雄, 『中國娼妓文化史』,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7, 189쪽.

13) 안으로는 경사에서 밖으로는 군읍까지, 모두 구란이라는 것이 있었으니, 배우들을 불러 모아 악부에 예속시켰는데, 관객들은 돈을 뿌리며 그들과 어울렸다. (夏庭芝, 『青樓集·青樓集志』: 內而京師, 外而郡邑, 皆有所謂構欄者, 辟優萃而隸樂, 觀者揮金與之。) 俞爲民·孫蓉蓉主編, 『歷代曲話彙編·新編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唐宋元編)』, 安徽: 黃山書社, 2006, 469~470쪽.

14) 원대 당시의 계급을 열 단계로 나누면, 일곱 번째가 장인, 여덟 번째가 기녀, 아홉 번째가 유생, 열 번째가 거지(七匠八倡九儒十丐)이다.

기도 하는데, 宋方壺의 [南呂·一枝花] 「妓女」에서는 ‘기원에서 태어나, 환락가에서 자라고,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웃음을 팔아 생활한’¹⁵⁾ 불행했던 기녀의 삶이 나타나고, 商衢¹⁶⁾의 [南呂·一枝花] 「嘆秀英」에서는 화자 수영이 기녀로 전락하는 과정과 한탄을 통해 사회 하층민으로서 기녀의 비참한 삶을 폭로하기도 한다.¹⁷⁾

또 元代에는 마음대로 양가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교방에 들일 수 있었기에, 양가의 여자들이 기녀로 전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원 초기에는 전쟁 포로나 죄인의 자식들이 기녀로 전락했고, 그 후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양가의 여자들이 기녀로 전락했다. 생계 때문에 자식을 기녀로 팔기도 했고 양녀가 되는 過房의 방식으로 양가의 여자들이 기녀로 매매되었다. 이러한 풍조는 중원과 강남, 즉 남북으로 두루 퍼져있었다.¹⁸⁾ 기녀들은 대부분 양민으로 돌아가는 ‘從良’을 원했지만 이를 이루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출가하여 비구니나 여도사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¹⁹⁾ 대부분은 불행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15) [南呂·一枝花] 「妓女」: 自在在柳陌中, 長立在花街內。打熬成風月膽, 斷送了雨雲期。只爲二字衣食, 賣笑爲活計。每日都準備, 準備下些送舊迎新, 安排下過從的見識。

16) 商衢(1194-1264後) 字는 正叔으로, 曹州 濟陰(지금의 山東 曹縣)사람이다. 南宋 藝人 張五牛의 『雙點小卿諸宮調』를 각색했다. 散曲 작품으로 小令 4수, 套數 8수, 殘套 1수가 있다. 套數의 내용은 주로 기녀의 연정 생활에 관한 것으로, 봉건시대 기녀의 불행한 운명을 표현했으며, 이들에 대한 깊은 동정을 드러내면서 기녀와 하층 문인들에 대한 원대 사회의 불공평한 처우에 대해 비판했다.

17) [梁州第七] 태어나자마자 내게 미친 재앙 때문에 가기가 되어, 기원을 위해 항상 바쁘게 뛰어다녔네. 수지와 부끄러움을 참고 견디며 무대에 앉았지. 시를 읊조리고 박판을 잡고, 기예를 선보이며, 무대에 올라 이야기 전했네. 높은 곳을 따르고 낮은 곳을 쫓으며, 옛사람 보내고 새사람 맞이했네. 몸과 마음은 좌절을 겪었건만, 어찌하여 나쁜 업보로 좋은 가문과 부부의 인연 바랄 수 없나. 악랄한 포주는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늙은 기생 어미는 손과 발을 묶어, 여기저기 찌르며 악랄한 방법을 쓰네. 이게 사는 것인가. 매일 아침이면 말할 수 없을 만큼 염치없어도, 또 미친 듯이 사랑하네. 마땅히 있어야 할 싹짓돈마저 사내에게 전당을 잡히고, 제멋대로 마음껏 농락당하네.

18) 권응상, 전계서, 216-217쪽.

19) 嘉興의 부호 濮樂는 천금을 주고 기녀 活佛奴를 첩으로 삼았으나 오래지 않아 죽자, 활불노는 비구니가 되었다. 湖州의 명기 汪憐憐은 經歷의 첩이 되었으나 3년 뒤 경력이 세상을 떠나자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다. 浙江의 기녀 李眞童은 檢校 達天山の 첩

이처럼 원대 기녀들은 때로는 문인과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존재였지만,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웃음을 팔아야만 했다. 따라서 기녀들은 술자리의 분위기 전환을 위해 권주가로서 詩와 散曲을 창작하기도 했지만, 詩와 散曲 창작을 통해 자신의 슬픈 운명을 노래하며 평범한 삶을 갈망했고, 나아가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3. 원대 기녀 작가의 시

원대 藝人을 기록하고 있는 『靑樓集』에 따르면 원대 기녀 중 張怡雲은 詩詞에 능했고, 珠簾秀는 詩卷이 있었으며, 梁園秀는 간혹 小詩를 읊었다고 하지만,²⁰⁾ 이들의 시작품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현존하는 원대 기녀 작가의 시작품은 주로 『元詩紀事』·『御選元詩』·『名媛詩歸』·『元詩選』·『靑樓韻語』·『覓燈因話』·『剪燈新話』에 실려있는데, 중복되는 작품을 제외하면 총 10인의 작가, 16수의 작품이 전한다.²¹⁾ 구체적인 작가와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²²⁾

번호	작가	신분	제목	형식	출처
1	凝香兒	大都管妓 (宮掖)	天香亭歌	雜言體	『元詩紀事』卷35 3-4쪽
			弄月曲		
			採菱曲		
			採蓮曲		
2	李翠娥	淮揚名妓 女冠	庭前梅樹	五言絕句	『元詩紀事』卷37
3	徐氏	江蘇常州 妓女	座上題詩	七言絕句	『元詩紀事』卷39 1쪽

이 되었으나 달천산이 죽자 도사가 되어 戒行修道를 하였고, 교방의 명기 李當當과 長安의 명기 連枝秀, 淮陽의 명기 李翠娥도 여도사가 되었다. 李秀雄, 전게서, 187-188쪽.

20) 黃雪篔簹輯, 『靑樓集』, 北京: 中華書局, 1985, 1-2쪽.

21) 『元詩紀事』에는 暨氏의 殘句도 실려있지만, 北宋 何蓮의 筆記 『春渚紀聞』에도 기씨의 이 작품이 실려있어 기씨는 원대 사람이 아닐 것으로 보고 제외하였다.

22) 본 논문에서는 陳衍, 『元詩紀事』, 上海: 商務出版社, 1925, 張豫章, 『御選宋金元明四朝詩御選元詩』, 清內府, 1709를 저본으로 하였다.

4	羅愛卿	浙江嘉興名妓	凌虛閣避暑玩月四首	七言絶句	『元詩紀事』卷39 1쪽
5	崔琦	妓女	示李師顔	七言絶句	『御選元詩』卷79 35쪽
6	阮碧雲	大都妓	絶句(또는 即事)	七言絶句	『御選元詩』卷79 35쪽
7	韓鶉兒	歌妓	答龔舍人	七言絶句	『御選元詩』卷79 35쪽
8	狄婉兒	妓女	秋夜語薩生	五言22句	『御選元詩』卷23 36-37쪽
9	李飛仙	妓女	與客遊樂	七言絶句	『御選元詩』卷79 35-36쪽
10	劉燕歌	燕山歌妓	有感	七言絶句	『名媛詩歸』卷24 18쪽

원대 기녀 중 凝香兒, 阮碧雲, 劉燕歌는 지금의 북경지역에서 활동하였다. 凝香兒는 大都의 官妓로 順帝시기 궁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阮碧雲도 大都에서 활동하였고, 劉燕歌는 燕山の 이름난 歌妓였다. 남부지방의 기녀로는 羅愛卿와 徐氏, 李翠娥가 있는데, 羅愛卿는 浙江 嘉興의 名妓였고, 徐氏는 江蘇 常州지역의 기녀, 李翠娥는 江蘇 淮陽의 기녀이나 나중에 女冠이 되었다. 상기의 6인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활동 지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생졸년도 미상이다.

시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모두 絶句를 사용하고 있고 七言이 가장 많고 五言의 작품도 있다. 기녀의 시작품은 이전 시대에도 칠언절구가 주로 창작되었는데 이는 칠언절구가 歌唱性에 부합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이다.²³⁾ 그러나 원대 기녀시 중에는 雜言騷體를 사용하고 있는 凝香兒의 작품이나 五言長詩의 狄婉兒의 작품도 있다. 작품의 주제는 크게 유희를 돋우는 시, 사랑을 맹세·고백하는 시, 상대를 깨우치는 시로 나눌 수 있다.

1) 유희를 돋우는 시

원대의 遊客들은 기녀와의 유희자리에서 노래와 춤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

23) 당대 기녀시와 송대 기녀시를 연구한 권응상의 논문에 따르면 당·송시기 기녀시에서는 62%의 칠언절구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칠언절구가 가창에 가장 유리한 형식이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권응상, 「송대 기녀문인과 그 문학사적 성격」, 『중국어문학』 53권, 영남중국어문학회, 2009, 121-122쪽.

데, 『靑樓集』에 실려있는 기녀들의 장기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노래와 춤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말과 유머, 그다음에 용모였다.²⁴⁾ 원대 기녀 작가들의 시작품에서도 이러한 당시의 분위기가 드러나는데, 연회 자리에서 유흥을 돋우는 시로는 凝香兒와 羅愛卿의 작품이 유명하다. 우선 가을밤 禁地에 배를 띄우고 유흥을 즐길 때 지었다는 凝香兒의 「弄月曲」을 살펴보자.

「弄月曲」 凝香兒

蒙衫兮蕊裳,	털저고리와 꽃 모양의 치마,
瑤環兮瓊瑤。	장식한 패물과 구슬 귀걸이
泛予舟兮芳渚,	배를 띄우네, 아름다운 모래톱에
擊余楫兮徜徉。	노를 저으며 헤매고 있네.
明皎皎兮水如鏡,	밝고 맑은 호수는 거울 같고,
弄蟾光兮捉娥影。	희롱하는 섬광은 아름다운 그림자 쫓네.
露團團兮氣清,	이슬은 둥글게 맺혀 서늘한 기운 감돌고
風颼颼兮力勁。	우수수 부는 바람은 힘이 세구나.
月一輪兮高且圓,	한 바퀴 달은 높고도 둥글고,
華綵發兮鮮復妍。	고운 빛깔 곱고도 선명하네.
願萬古兮每如此,	만고에 바라네, 늘 이와 같길,
予同樂兮終年。	나도 함께 즐기며 이렇게 한 해를 보내네.

凝香兒는 順帝시기 官妓로 뛰어난 재주로 궁에 들어가 才人이 되었다. 당시 순제의 총애를 받았던 7명의 여인을 ‘宮中七貴’²⁵⁾라 하였는데 응향아도 그중 하나였다. 雜言騷體로 지어진 위의 시는 여인의 형상에 대한 묘사에서 시작해 작가의 바람을 드러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먼저 털저고리와 연꽃 치마를 입고 장신구를 걸친 여인의 우아한 모습을 묘사하였고, 이어 가을 저녁 연못에 띄운 배 위에 달빛이 내려 여인의 춤사위가 아름답게 그림자 지는 모

24) ‘원나라 사람들은 游娼할 때 ‘彈唱歌舞’에 치중하였다. 또 ‘尤善談諢’, ‘談笑風生’, ‘談笑談諧’등으로 볼 때 말을 잘하고 유머를 잘하는 것이 그 다음이었다. 李秀雄, 전게서, 190-191쪽.

25) 원 順帝의 총애를 받았던 凝香兒, 淑妃 龍瑞嬌, 程一寧, 戈小娥, 麗嬪 張阿玄, 支祁氏, 人英 英을 말한다.

습을 묘사하고 있다. 호수와 배, 달빛, 이슬과 바람 등 가을밤 연회의 정경이 잘 드러난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아름다운 풍경에 이 같은 풍류가 계속되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겼다. 이어서 6월 보름에 駕湖에 있는 凌虛閣에 모여 피서 중 달을 감상하며 지었다는 羅愛卿의 시작품을 살펴보자.

「凌虛閣避暑玩月四首」 羅愛卿

其一

畫閣東頭納晚涼, 화려한 누각 동쪽 끝에 서늘한 바람 불어오니,
紅蓮不似白蓮香. 홍련이 피었으나 백련 향기 같진 않네.
一輪明月天如水, 둥글고 밝은 달 떠오르니 하늘은 호수 같고,
何處吹簫引鳳凰. 어느 곳에서 부는 통소 소리 봉황을 부르는가?

其二

月出天邊水在湖, 하늘가에 달이 떠오르고 물은 호수가에,
微瀾倒浸玉浮圖. 찰랑이는 잔물결에 산봉우리 잠겨있네.
擘簾欲共嫦娥語, 주렴 걸고 향아와 함께 말하려는데
却恨林間鳥亂呼. 숲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원망스럽네.

其三

手弄雙頭茉莉枝, 손으로 모리화 두 가지 희롱하니
曲終不覺鬢雲欹. 한 곡조 끝나자 귀밑머리 스르르 흐르네.
佩環響處飛仙過, 패옥 소리 울리는 곳으로 비선 지나가니
願借青鸞一隻騎. 푸른 난새 빌려 타고 나 또한 날고 싶네.

其四

曲曲欄干正正屏, 굽이굽이 난간에 겹겹의 퍼진 병풍,
六銖衣薄懶來凭. 육 수의 얇은 옷에 나른히 기대어 섰네
夜深風露涼如許, 밤 깊어 바람과 이슬의 서늘함이 이와 같으니,
身在瑤臺第一層. 요대의 높은 곳에 이내 몸이 와 있구나.

『剪燈新話·愛卿傳』에 따르면 羅愛卿는 浙江 嘉興지역의 名妓로 미모와 재주가 당시에 독보적이었다고 한다. 성품과 식견도 높아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름난 才士들이 모두 그녀와 사귀고자 하였다. 보름밤 駕湖에서 문사들에 앞서 지었다는 위의 시 4수는 그 탁월함에 모두가 붓을 내려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²⁶⁾ 4수 모두 감춰둔 기녀의 슬픔을 달과 연관시켜

서술하였는데, 제1수에서는 화려한 누각의 붉은 연꽃 같은 기녀이지만 蕭史가 弄玉과 봉황을 타고 날아간 것처럼²⁷⁾ 자신의 짝을 찾아 벗어나고픈 마음을 읊었고, 제2수에서는 보름달 속 嫦娥에게 하고픈 말이 있지만 전해지지 못함을 슬퍼한다. 제3수에서는 기녀의 삶을 살아가나 저 또한 난새 타고 선계로 가고 싶으며, 제4수에서는 그 바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을 이야기한다. 달이 지닌 재생의 이미지에 不死와 자유를 상징하는 嫦娥와 飛仙 등의 여성 인물들을 겹쳐 놓아, 기녀의 바람과 이를 이루지 못하는 현실의 슬픔이 더욱 선명히 대조된다. 끝으로 아래의 작품은 기녀 李飛仙이 손님과 흥을 돋우며 지은 작품이다.

「與客遊樂」李飛仙

桃李芳菲二月天, 복숭아와 매화 향기 가득한 2월의 하늘
洞房春色十分妍. 기방의 봄빛 너무 아름답네.
欲知好景無邊處, 밖엔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 보고 싶으나
倚翠偎紅興獨偏. 기녀들과 흥겨움에 유독 빠져있네.

이 작품에서는 기녀와 유객의 모습이 번갈아 가며 묘사되었는데 두 번째 구에서는 기방 기녀의 교태 가득한 모습이, 마지막 구에서는 그런 기녀들과 즐거움에 빠진 유객의 모습이 그려진다. 매화와 복숭아꽃이 싹을 틔우는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하고 香艷에 빠진 남녀의 모습이 기방의 유흥을 잘 보여준다.

2) 사랑을 고백·맹세하는 시

26) 구우·이정·소경침, 『전등삼중(상)』, 서울: 소명출판, 2005, 224-240쪽.

27) 鳳樓吹簫 전고를 사용한 것으로 春秋시기의 蕭史가 秦穆公의 딸 弄玉을 아내로 맞았는데 두 사람이 통소를 불자 鳳凰이 와서 등지를 틀었고 수년 후에 봉황을 타고 신선이 되어 날아갔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남녀 간의 아름다운 짝을 말할 때 자주 사용된다. 範之麟, 『全宋詞典故辭典·上』, 武漢: 湖北辭書出版社, 2001, 480쪽.

다음으로 원대 기녀의 시작품에는 사랑을 고백하거나 맹세하는 내용이 많은데, 기적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고 싶은 작가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우선 崔琦와 狄婉兒의 작품을 살펴보자.

「示李師顏」 崔琦

已攢彩翼乘丹鳳, 찬란한 날개 달아 붉은 봉황을 타고,
肯閉雕籠伴綠衣. 기꺼이 새장을 닫고 녹의와 함께 하겠네.
前路莫愁風力勁, 앞으로의 길 걱정 마시고 넘뜰한 기세로,
同心自誓一行歸. 한마음으로 맹세해요 한 줄로 나란히 돌아가겠다고.

이 작품은 기녀 崔琦가 李師顏에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고백하는 작품으로, 기적에서 벗어나려는 최기가 망설이는 상대의 마음을 격려해 재촉한다. 최기의 이러한 적극성은 당·송대 기녀들의 시에서 주로 보이던 소극적 기다림의 자세와는 확연히 다르다. 기적에서 벗어나려는 작가의 절박함이 시적 운율과 賦體의 曲化된 직설적 어휘 속에 그대로 배어 나온다. 狄婉兒의 아래의 작품에서도 기적에서 벗어나고 싶은 작가의 욕망이 드러난다.

「秋夜語薩生」 狄婉兒

團團月桂滿, 둥근 달에 계수나무 가득하고,
藹藹秋蘭芳. 가을 난초 향기가 아득하네.
桂影天外飄, 계수나무 그림자 하늘 밖으로 날리고
蘭生王者香. 그윽한 난초는 왕자의 향이네.
賤軀入風塵, 빈천한 신분으로 세상에 태어나니
羞此蘭桂芳. 난초 계수 향기 마주하기 두렵네.
歡狎但下帶, 희롱하며 허리띠 내려놓으심 반가워
厭浥時沾裳. 눈물을 흘리며 수시로 옷자락 흠뻑 적시네.
今喜得君意, 오늘 그대의 마음을 얻으니 기뻐
長願侍君牀. 침상에서 오래도록 그대 시중들 수 있길 바라네.
雉朝雒嘉樹, 평은 아침에 좋은 나무에 올라 울고
鵲暮據盤桑. 너새는 저녁에 뽕나무에 의지하네.
擬載指南車, 남쪽 향하는 수레를 타고
相逢返北堂. 서로 만나 북당으로 돌아오네.

共逐行雲去, 함께 구름 쫓아가
 瞻望明星光。 밝은 빛으로 빛나길 바라네.
 銀燈漫綽約, 은등은 부드럽고 아름답게 넘실거리고
 玉珮解鏗鏘。 옥패는 곱고 낭랑하게 풀리네.
 脫此圍鸞棲, 이곳을 벗어나 첩 뒤를 육한대도
 盼彼遠羊腸。 저 멀리 험한 길을 바라네.
 行歸作君婦, 돌아가 그대의 아내로
 生死無相忘。 생사를 함께 하며 서로 잊지 않길

이 작품은 가을밤 薩生에게 보내는 사랑의 고백이자, 薩生의 아내가 되어 기적에서 벗어나고 싶은 작가의 마음을 드러낸 시이다. 보름달 아래 난초향 같이 우아하고 존귀한 낭군, 미친한 기녀 앞에 귀함을 내려놓으시니, 그 마음을 얻어 낭군 곁에서 시중들 수 있음이 너무도 기쁘다. 그리하여 꿩이 나무에 올라 울듯, 너새가 뽕나무에 의지하듯 늘 함께하길 바란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소망을 드러내는데, 결국 그대의 아내로 생사를 함께 하고 싶다는 고백이다. 마지막 작품은 기녀 阮碧雲이 낭군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絶句이다.

「絶句」 阮碧雲
 東君情意漲如瀾, 동군의 애정 물결처럼 불어나니
 畫閣鴛鴦夜不寒。 화각의 원앙금침 밤에도 춥지 않네.
 十二樓中春色過, 열 두 누각에 봄빛 지나가면
 好花開遍玉闌干。 좋은 꽃 옥난간에 가득하겠지.

명대 문학가 鍾惺의 『名媛詩歸』에서는 이 시의 첫 구절에 대해서 “애정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²⁸⁾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태양과 꽃에 낭군과 자신을 비유하고, 낭군의 애정으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작가의 행복한 감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외에 燕山의 歌妓 劉燕歌는 「有感」²⁹⁾이라는 시에서 함께 사

28) “寫得情意生動。” 鍾惺, 『名媛詩歸』 卷二十四, 明末(1621-1644)刻本, 18쪽.

29) 「有感」: 지난날 즐거움에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것 기억하네. 제나라 산과 바다에 서로 잊지 말자 맹세하였지요. 어찌 홀연히 그대는 나를 버리시고, 천고에 미운 이십

량을 맹세했던 李十郎이 자신을 버리니, 천고의 미운 사람으로 남았다고 원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3) 상대를 깨우치는 시

원대 기녀의 시작품에는 목숨을 걸고 상대를 꾸짖거나, 자신의 가치관을 시를 통해 깨우치는 작품도 있는데, 아래의 徐氏와 李翠娥의 작품이 그러하다.

「座上題詩」 徐氏

平康巷裏掌中身, 유곽거리에서 가녀린 몸으로,
翠舞珠歌玉樹春. 옥 같은 나무가 품은 봄에 아름다운 춤과 노래 불렀네.
不得籍除今義死, 기적을 벗지 못하고 오늘 의롭게 죽으니,
天教娼婦愧降臣. 하늘이 이 년으로 하여금 향신을 부끄럽게 하시네.

이 작품은 흥건적이 常州를 침략했을 때 기녀 徐氏가 지은 것으로,³⁰⁾ 투항한 장군이 술 시중을 들게 하자 서씨가 죽음을 각오하고 지은 것이다. 이 시로 서씨는 결국 사지를 찢어 죽이는 磔刑을 받아 죽지만, 미천한 신분에도 투항한 장군을 조롱하는 그녀의 의기만은 천고에 길이 남았다. 마지막으로 李翠娥는 정원의 매화를 통해 기녀와의 향연에 빠진 지식인들을 일깨운다.

「庭前梅樹」 李翠娥

粲粲梅花樹, 밝게 빛나는 매화나무
盈盈似玉人. 그 맑고 아름다움이 미인과 같네.
甘心對冰雪, 기꺼이 빙설을 견디며
不愛豔陽春. 화려한 봄 좋아하지 않네.

邵景詹의 『覓燈因話·翠娥語錄』에는 이 시와 관련된 일화가 상세히 기록되

랑으로 남았소.(憶昔歡娛不下床, 盟齊山海莫相忘. 那堪忽爾成拋棄, 千古生憎李十郎.)

30) 俞弁의 『逸老堂詩話』에는 이 시가 龍江 章琬孟이 이 사건을 목도하고 쓴 시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진위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어 있는데, 李翠娥는 淮陽의 名妓로 성품이 곧고 詩書에 통달하여 의론하기를 좋아하였다고 한다. 至元 2년 陸宅之가 揚州總管이 되어 부임하였는데, 그녀를 불러 노래를 시켰으나 취아가 이에 응하지 않고 대신 위의 시를 지었는데 빙설을 이겨내며 봄날 風情을 즐기지 않는 매화에 자신의 뜻을 寓意하였다. 취아는 기녀로 태어났으나 꽃과 달에 쉬이 물드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구름과 물이 맑은 것을 흠모하였다. 더불어 기녀와 함께 인생을 낭비하는 귀족 자제들에게 경계의 뜻을 전하고자 하였다.³¹⁾ 邵景詹는 이 글에서 이취아에 대해 “이미 운우를 꿈꾸지 않고 가을 달과 봄바람을 등한히 하네. 부들방석 위의 공부 끝나 진면목을 깨치면 봉래산에 이르러 신선될 수 있을 정도네.”³²⁾라고 평하였다.

4. 원대 기녀 작가의 산곡

원대 기녀 작가의 산곡은 주로 『全元散曲』·『靑樓集』에 실려있고 중복되는 작품을 제외하면 총 9인의 작가 10수의 작품이 전한다. 구체적인 작가와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³³⁾

번호	작가	신분	曲牌	제목	형식	출처
1	張怡雲	倡優	[雙調·小婦孩兒]		小令 殘曲	『全元散曲』 287쪽
2	珠簾秀	歌妓	[雙調·壽陽曲] [正宮·醉西施]	「答盧疏齋」	小令 套數	『全元散曲』 354-355쪽
3	劉燕歌	歌妓	[仙呂·太常引]	「錢齊參議」	小令	『靑樓集』 2쪽

31) 『覓燈因話·翠娥語錄』에서 이취아는 위진 시기의 인물을 평하면서 현명하고 강인하다고 말한다. 오늘날의 학사나 대부들이 색을 가까이하고, 밖에서 아이까지 낳으며, 술 마시고 음악에 탐닉하는데 이에 대한 의론이 없어 죄짓는 줄도 모른다며 비판한다. 구우·이정·소경첨, 전게서, 429-430쪽.

32) “既不作入夢朝雲暮雨，也須撇等閒秋月春風。若教了蒲團上工夫，識透本來面目；便可到蓬壺中境界，修成方外神仙。” 구우·이정·소경첨, 전게서, 433쪽.

33) 본 논문에서는 1981년 출간한 隋樹林的 『全元散曲』(中華書局)을 底本으로 하고, 번역과 해설은 『全元散曲 廣選·新注·集評』(遼寧人民出版社), 『元曲鑒賞辭典』(商務印書館)을 참고했다.

				回山東」		
4	眞氏	歌妓	[仙呂·解三酲]		小令	『全元散曲』 1144쪽
5	王氏	歌妓	[中呂·粉蝶兒]	「寄情人」	套數	『全元散曲』 1274쪽
6	一分兒	角妓	[雙調·沉醉東風]		小令	『全元散曲』 1409쪽
7	張玉蓮	倡優	[雙調·折桂令]		小令	『全元散曲』 1410쪽
8	劉婆惜	樂工李四妻	[雙調·清江引]		小令	『全元散曲』 1412쪽
9	張氏	元妓	[南呂·青衲襖] 南	「偷期」	套數	『全元散曲』 1648쪽

원대 여성 작가의 산곡 작품 대다수는 妓女들이 창작하였다. 형식상 套數도 일부 있으나 小令이 대부분이고, 張氏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北曲이다. 작품의 주제는 크게 유흥과 應酬의 산곡, 위로와 이별의 산곡, 원망과 한탄의 산곡으로 나눌 수 있다.

1) 유흥과 應酬의 산곡

원대 기녀의 산곡에서도 유흥을 돋우는 작품이 발견되는데, 우선 大都의 기녀 一分兒의 [雙調·沉醉東風] 작품을 살펴보자.

[雙調·沉醉東風]

紅葉落火龍褪甲，青松枯怪蟒張牙。可詠題，堪描畫，喜觥籌席上交雜。答刺蘇頻斟入禮廝麻，不醉呵休扶上馬。 붉은 잎 불이 불어 용의 비닐 떨어지는 듯하고, 푸른 소나무 괴이하게 말라서 이무기가 어금니를 벌린 듯하네. 시로 읊을만하고 그림으로 그릴만하니, 기쁘게 술잔 왔다 갔다 하는구나. 답사소가 자주 예시마로 들어가니, 술 취하지 않으면 말에 오를 생각 말라.

작가 一分兒는 元末 大都의 유명한 기녀로 姓은 王이고, 本籍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노래와 춤에 매우 뛰어났고, 상당히 총명했다고 한다. 『靑樓集』에 의하면, “丁指揮가 才人 劉士昌, 程繼善 등과 江鄉園에 모여서 간단히 술자리를 가졌는데, 一分兒가 술시중을 들었다. 마침 小姬가 「菊花會」 南呂曲을 부르면, 丁指揮가 ‘이 곡은 [沉醉東風]의 첫 구절이군. 자네가 완성할 수 있겠

지?’라고 하자, 一分兒가 음악에 맞추어 노래했다. 듣고 있던 좌중이 모두 칭찬했고, 이 일로 인해 그녀의 명성이 더욱 높아졌다.”³⁴⁾고 한다.

答刺蘇와 禮廡麻는 본래 蒙古語로 술과 술잔을 의미한다. 술을 가득 따르고 술잔을 멈추지 말라고 말하며, 모두 술에 취하지 않으면 말 타고 돌아갈 수 없다고 노래하면서 술자리의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첫 번째 두 구절은 주위의 경물에 대한 묘사로, 大都의 높고 맑은 가을 하늘과 눈부시게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했다. 붉고 푸른 선명한 색채로 大都의 가을이 매우 생기 있게 표현되면서, 뒤이어 이어지는 음주 장면의 열띤 분위기와 조화를 이룬다. 小令이지만 그 구조가 완전하여 빈틈이 없고, 참신한 비유와 선명한 색채, 속어의 운용 등이 작품의 호방한 풍격을 잘 표현해내고 있다. 다음으로 기녀 劉婆惜의 작품을 살펴보자.

[雙調·清江引]

青青子兒枝上結，引惹人攀折。其中全子仁，就裏滋味別，只爲你酸留意兒難棄舍。 푸르고 푸른 열매가 가지 위에 맺혔으니, 사람들이 올라가 꺾고 싶게 하네. 그 가운데 모든 종자, 그 속은 맛이 특별한데, 다만 그대 신맛은 마음에 남아 포기하기 어렵네.

元末의 기녀 劉婆惜은 뛰어난 재주 덕분에 당시의 貴人官僚들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 樂人 李四의 아내가 되었으나 撫州常推官의 아들 三舍와 야반도주를 하려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어 곤장을 맞았는데, 수치심에 廣海로 떠나 살기로 결심한다. 贛州를 지나는 길에, 劉婆惜은 산곡 작가 全普庵撥里³⁵⁾를 만나 술자

34) 『青樓集』：一日，丁指揮會才人劉士昌、程繼善等於江鄉園小飲，王氏佐樽。時有小姬歌菊花會南呂曲云：紅葉落，火龍裊甲，青松枯，怪蟒張牙。丁曰此沉醉東風首句也。王氏可足成之。一座嘆賞，由是聲價愈重焉。黃雪蓑輯，전계서，10쪽.

35) 全普庵撥裏(?-1358)는 字가 子仁이며, 高昌(지금의 新疆)사람으로 元代 散曲作家이다. 中書省檢校, 監察御史, 江西行省參政을 거쳤으며, 至正18년(1358) 陳友諒이 江西를 공격하여 贛州를 포위한 수개월의 전쟁 끝에 결국 패하여 자결했다. 청렴한 관리로서 詩書에 능통했고, 자주 사대부들과 술을 즐기며 시를 지었다. 현존하는 散曲으로는 小令 [雙調·清江引] 聯句殘句가 있는데, 『青樓集』에 보인다.

리에 참석하였다. 全普庵撥里가 [清江引] 의 즉흥적인 곡에 응수를 요청하였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는데, 이때 劉婆惜이 위의 작품으로 응수했다고 한다.

劉婆惜은 ‘푸르고 푸른 열매가 가지 위에 맺혔으니’라는 첫 구에 이어 ‘사람들이 올라가 꺾고 싶게 한다.’라고 全子仁에 대한 愛慕의 뜻을 남몰래 드러낸다. 雙關의 수사법을 사용하여 표면적으로는 푸른 매실의 맛이 여전히 시고 툭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다른 맛이 있다는 것과 대응시키고 있다. 이는 全子仁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풍류가 있음을 칭찬하고, 全公에 대한 劉婆惜 자신의 연모와 그와 헤어지기 싫은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劉婆惜의 곡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칭찬하였고, 全公은 특별히 劉婆惜을 총애하여 자신의 첩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2) 위로와 이별의 산곡

원대 歌妓들은 詩詞에 능했고, 담소를 잘했으며, 기예가 뛰어나서 많은 문인들의 문학적 동료가 되었다. 張怡雲³⁶⁾ 역시 뛰어난 재주로 명성이 자자했는데, 그녀의 殘曲인 小令 [雙調·小婦孩兒] 를 살펴보자.

[雙調·小婦孩兒]

暮秋時。菊殘猶有傲霜枝。西風了却黃花事。 늦가을에, 국화는 시들어도
여전히 서리를 이겨낸 가지 있네. 서풍이 국화꽃을 날려버렸네.

이 작품은 『靑樓集』에 그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재상 姚牧庵, 閻靜軒은 張怡雲의 집에서 매일 술을 마셨다. 어느 날 한 귀인과 함께 술자리를 하였는데, 이때 이 두 사람도 참석하고 있었다. 姚牧庵이 우연히 ‘暮秋時’라는 세 글자를 말하자, 閻靜軒이 張怡雲에게 이어 부르길 청하였고 張怡雲이 위의 작품을 지었다고 한다.³⁷⁾ 작가는 귀인을 가을 국화 가지에 비유하면서 국화

36) 張怡雲은 詩詞에 능하고 談笑를 잘했으며, 유명 화가였던 趙松雪, 商正叔, 高房山 등이 그녀를 위해 怡雲圖를 그려주기도 했고, 여러 재상들이 시를 지어 그녀와 두루 가까이하였다.

꽃은 다 시들었지만 서리 풍파를 이겨낸 가지가 남아 있다며 귀인을 위로한다. 귀인은 감동한 바가 있어 노래가 다 불리기 전에 잠시 문장을 멈추라 하였는데 이 때문에 작품이 殘曲으로 남았다. 張怡雲은 이처럼 문학작품을 통하여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았고, 곡과 가사를 제시하면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노래할 만큼 문학적 창작력과 음악적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어서 기녀 張玉蓮이 班彥功과 이별할 때 지어주었다는 小令 2수를 살펴보자.

[雙調·折桂令]

朝夕思君。泪點成斑。아침저녁으로 그대 생각하니, 눈물로 얼룩지네.

[失宮調牌名]

側耳聽門前過馬。和泪看簾外飛花。귀 기울여 문 앞으로 말 지나는 소리 들리니, 눈물지으며 주렴 밖에 휘날리는 꽃 바라보네.

張玉蓮³⁸⁾ 역시 문학과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던 기녀로 사람들은 그녀를 張四媽로 불렀다. 張玉蓮은 司儒 班彥功과 매우 가까이 지냈는데 班司儒가 임기가 끝나고 북으로 떠날 때 위의 [折桂令]을 지어 그에게 주었다고 한다. 현재는 이 작품의 末句만이 남아 있다. 또한 궁조명을 알 수 없는 작품 一聯도 있는데 이별을 아쉬워하는 작가의 마음이 잘 담겨있다.

다음으로 大都의 歌妓 劉燕歌는 大都 中書省에서 사직하고 山東으로 떠나는 齊參議³⁹⁾를 전별하며 아래의 [仙呂·太常引]을 지었다. 이 곡은 전별할 때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그리움의 감정을 노래한 곡으로, 지금까지 인구에 회자된다.

37) 黃雪簑輯, 전게서, 1쪽.

38) 張玉蓮은 음이 전하지 않은 옛 곡조를 찾아내어 가사에 맞추어 노래했으며, 현악기와 관악기에도 정통했다. 博戲를 모두 이해했을 뿐 아니라 담소를 즐겼고, 우아하고 교양이 넘쳤다. 남북의 畵詞를 즉석에서 지어 읊을 정도의 뛰어난 음악 실력은 당시에 비길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39) 齊參議는 齊榮顯(?-약1270)으로 字가 仁卿이며 聊城(지금의 山東)사람이다. 參議는 參議 中書省事로, 正四品の 관직이다.

〔仙呂·太常引〕 饒齊參議回山東

故人別我出陽關，無計鎖雕鞍。今古別離難，兀誰畫娥眉遠山。一尊別酒，一聲杜宇，寂寞又春殘。明月小樓間，第一夜相思淚彈。 친구가 나를 떠나 양관을 나서며, 조각된 말안장을 매니 어찌할거나. 예나 지금이나 이별은 어려우니, 누가 먼 산 같은 아름다운 눈썹을 그려줄까? 이별주 한 잔에, 두견새 울음소리, 적막한데 봄은 또 가는구나. 밝은 달은 작은 누대 사이를 비추니, 첫날밤 그리움에 눈물 뿌리네.

‘故人’이라는 표현을 통해 두 사람의 우정이 매우 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陽關’을 통해 아득하고 먼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王維의 ‘西出陽關無故人’의 명구를 化用했을뿐 아니라, 張敞의 典故⁴⁰⁾를 사용한 것에서 제참의가 떠날 때 그녀의 세세한 것까지 돌봐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두 구절의 홀로 빈 누각을 지키며, 밝은 달을 우러러 바라보는 여인의 외로운 모습에서 이별의 슬픔을 느낄 수 있다.

끝으로 珠簾秀⁴¹⁾의 이별가를 들 수 있는데, 주립수는 元代 雜劇의 유명한 연기자로서 여러 문인들의 창작과 사모의 대상이었다.⁴²⁾ 아래의 곡은 盧摯⁴³⁾의 이별가에 대한 朱簾秀의 답가이다.

「答盧疏齋」

山無數，煙萬縷，憔悴煞玉堂人物。倚篷窗一身兒活受苦，恨不得隨大江東去。 무수한 산, 자욱한 안개. 초췌한 옥당의 인물, 선창에 기댄 외로운

40) 許嘉璐主編, 『元史·漢書』 「張敞傳」,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1576쪽.

41) 珠簾秀의 姓은 朱이고, 藝名은 珠簾秀이다. 한때 元 大都(지금의 北京)의 雜劇 무대에서 독보적인 인물이었다. 名公 文士들이 모두 그녀를 높이 평가했고, 후배들은 그녀를 ‘朱娘娘’이라고 불렀다. 元曲 作家인 關漢卿, 胡祇遜, 盧摯, 馮子振, 王潤秋 등과 교류하며 서로 詞曲을 주고받았다. 현존하는 작품으로 小令과 套數가 각각 一首씩 전한다.

42) 關漢卿의 [南呂·一枝花] 「贈朱簾秀」, 盧摯의 [雙調·壽陽曲] 「別朱簾秀」, [雙調·蟾宮曲] 「醉贈樂府朱簾秀」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43) 盧摯(1242-1314)는 元代의 文學家로 字는 處道, 號는 疏齋 또는 蒿翁이라고 한다. 元 涿郡(지금의 河北省 涿縣)사람이다. 至元5年(1268)에 進士가 되어 廉訪使, 翰林學士를 역임했다. 詩文에 있어서 劉因, 姚燧와 함께 유명하고, 元曲작가인 白樸, 馬致遠, 珠簾秀와 자주 교류했다. 『盧書齋集輯存』, 『全元散曲』에 120수의 小令이 전한다.

몸 고통받으니, 장강 따라 동쪽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구나.

盧摯가 화려한 배 따라 떠나는 朱簾秀를 보며 ‘화려한 배 위에 봄빛도 실어 가니’라고 노래하자⁴⁴⁾ ‘장강 따라 동쪽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며, 盧摯의 작품에 화답하고 있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 힘들어하는 이별의 정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 작품 이외에 주렴수의 套數 [正宮·醉西施] 에서도 이별의 정이 잘 나타나는데 그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檢點舊風流，近日來漸覺小蠻腰瘦。想當初萬種恩情，到如今反做了一場
倜儻。害得我柳眉顰秋波水溜，淚滴春衫袖，似桃花帶雨胭脂透。綠肥紅
瘦，正是愁時候。풍류 있던 지난날 돌아보니, 근래에 차츰 소만처럼 허
리가 아위는 것을 깨닫네. 생각해보니 애초에 받은 수많은 은정, 지금은
오히려 원망이 되었네. 내 버들 같은 눈썹은 찡그려지고 가을 물결 같은
눈에는 눈물 흘러, 방울져 봄 적삼을 적시니, 비를 머금은 복사꽃처럼 연
지로 스미네. 푸른 잎 무성해지고 붉은 꽃 지니, 바로 근심할 때이라.
[並頭蓮] 風柔，簾垂玉鉤。怕雙雙燕子，兩兩鶯儔，對對時相守。薄情
在何處秦樓？贏得舊病加新病，新愁擁舊愁。雲山滿目，羞上晚粧樓。바
람은 부드럽고, 주렴은 옥고리에 걸렸네. 한 쌍의 제비, 짝을 이룬 피꼬
리는, 마주 보며 서로를 지켜주고 있구나. 박정한 임은 어느 기루에 있
나? 오랜 병에 새로운 병까지 더하고, 새로운 근심은 지난 근심을 감싸
네. 눈에 보이는 건 모두 구름 낀 산, 저물녘 누대에 수줍게 오르네……

이 투수는 여성 특유의 섬세한 필치와 심리 묘사를 통하여 임과 이별한 여인의 마음을 애뜻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시름과 기쁨, 애정과 질투, 절망과 희망이 교차되는 복잡한 심리변화를 잘 포착하고 있다.⁴⁵⁾ 또한 李清照, 秦觀 등 유명 사인의 詞句를 化用하여 적절하게 작품에 표현했다.⁴⁶⁾

44) 盧摯의 [雙調·壽陽曲] 「別朱簾秀」: ‘이제 겨우 즐거워졌는데, 벌써 이별이라니, 고통스러워라. 정말 어려운 이별. 화려한 배 위에 봄빛도 실어 가니, 강에 반쯤 잠긴 밝은 달만 덧없이 남았네. (總歡悅，早間別，痛煞煞好難割捨。畫船兒載將春去也，空留下半江明月。)’

45) 권응상, 전계서, 253쪽.

46) 첫 곡 [醉西施]의 “綠肥紅瘦”, 제4곡인 [並頭蓮]의 “滿眼春江都是淚”은 각각 李清照의

3) 원망과 한탄의 산곡

원대 기녀 산곡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은 아래의 한탄과 호소의 작품들인데 먼저 眞氏의 [仙呂·解三醒] 를 살펴보자. 진씨는 建寧縣(지금의 福建)사람으로 본래 南宋의 유명한 理學者인 眞德秀⁴⁷⁾의 증손녀이나 후에 기녀로 전락하였고, 다시 姚燧의 도움으로 기적에서 벗어나 관리의 아내가 된다.⁴⁸⁾ 아래의 작품은 이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⁴⁹⁾

[仙呂·解三醒]

奴本是明珠擊掌。怎生的流落平康。對人前喬做作嬌模樣。背地裏淚千行。三春南國憐飄蕩。一事東風沒主張。添悲愴。那裏有珍珠十斛。來贖雲娘。 소녀는 본래 부모의 보배로운 존재였는데, 어쩌다가 평강의 기녀로 전락했을까요? 손님들 앞에서는 아리따운 모습으로 꾸미지만, 뒤에서는 슬픔의 눈물 하염없이 흘립니다. 석 달의 봄을 남국에서 가엽게 떠돌면서, 동풍에 몸을 맡기고 내 삶을 결정하지도 못했네요. 슬픔만 더하니, 진주 열 곡으로, 운낭을 구해줄 분 어디 있나요?

이 곡은 모두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1,2구에서는 眞氏가 기녀로

「如夢令」“知否，知否，應是綠肥紅瘦”의 구절을, 秦觀의 「江城子」“便作春江都是淚，流不盡，許多愁。”의 구절을 化用했다.

47) 眞德秀(1178-1235)는 南宋의 參知政事, 理學家, 詩文家이다. 朱熹의 뒤를 잇는 理學의 정통 계승자로서 魏了翁과 함께 유명했다. ‘西山眞氏學派’를 창설하여 학자들은 그를 西山先生이라고 불렀다. 『眞文忠公集』이 세상에 전한다.

48) 이에 관해서는 『南村輟耕錄』에 자세한 기록이 전해진다. 姚燧(1238-1313)가 翰林學士 承旨가 된 날, 잔치를 열고 여러 명의 歌妓를 불렀다. 그 가운데 鬪音을 잘 내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 公이 그 사연을 물었다. 여인이 자신은 建寧사람으로 眞西山의 후예인데, 부친이 공금을 무상으로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기원에 팔리게 되었다고 했다. 尤수가 丞相 三玉奴에게 그녀를 妓籍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여인을 한 官리와 짝을 지어주고, 자신이 그녀의 아버가 되겠다고 하니 官리 또한 흔쾌히 尤수의 명을 따랐다. 『南村輟耕錄』 卷22, 「玉堂嫁妓」 245쪽.

49) 姚燧가 翰林學士로 임명된 것은 至大 2년에서 4년 사이로, 1309년에서 1311년 사이에 이 작품이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락하게 된 연유를 밝히고 있고, 제3,4구에서는 관부의 연회에 참석하여 술 시중을 들어야 하는 관기의 괴로운 생활을 말하며, 제5,6구에서는 세월이 덧없이 흘러 청춘이 사라지는 슬픔을 표출한다. 마지막 세 구에서는 從良을 실현할 수 없는 비참함을 노래한다. 眞氏는 石崇이 열 곡의 진주로 자신의 애첩인 綠珠를 산 것처럼,⁵⁰⁾ 唐代 관기 云娘⁵¹⁾과 같이 초췌한 자신을 구해줄 사람을 기다리며 불구덩이 같은 이곳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노래하고 있다. 熊篤이 ‘남성 작가의 작품에서 보이는 평범한 울림과는 다른 빈 골짜기에서 울리는 사람의 발소리(空谷足音)와 같다’⁵²⁾고 한 평가처럼 큰 울림이 느껴지는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詞曲에 능통했다는 大都의 妓女 王氏의 套曲 [中呂·粉蝶兒] 「寄情人」를 살펴보자. 이 작품은 雙漸蘇卿 고사⁵³⁾에 빗대어, 욕심 많은 어머니 때문에 돈벌이 도구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기녀의 슬픈 운명을 노래하였다. 기녀 王氏는 자신을 기녀 小卿에, 賣買婚을 하려는 사람을 茶商馮魁에, 소식 없는 입을 書生 雙漸에 비유하였다.

[粉蝶兒]에서 [堯民歌]까지는 馮魁의 간계와, 소식 없는 입에 대한 그리움, 사원을 찾아가서 벽에 시를 쓰는 과정, 오랫동안 소식 없는 입을 기다

50) 唐 喬知之『綠珠篇』에서 ‘明珠十斛買娉婷(진주 열곡으로 미녀를 샀네)’라는 구절로 侍婢에 대한 총애를 말한다.

51) 云娘은 唐代 澧州 관기 崔云娘을 말한다. 야원 운낭을 자신에게 비유하여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다.

52) 熊篤, 「論元散曲中的青樓詞兼論元代妓女特點」, 『重慶工商大學學報』第24卷 5期, 2007, 99쪽.

53) 元曲이 생긴 이후로 가장 많이 읊조린 3대 애정 고사는 張生과 崔鶯鶯의 西廂고사, 唐玄宗과 楊貴妃의 馬嵬坡고사 그리고 雙點少卿 고사이다. 梁乙眞, 『元明散曲小史』, 北京: 商務印書館, 1998, 229쪽. 雙漸蘇卿 고사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기녀 蘇少卿과 사랑에 빠진 서생 雙漸이 과거시험을 치르러 떠난 사이에 蘇卿은 기생어미에 의해 茶引 삼천 냥에 상인 馮魁에게 팔려간다. 蘇卿은 金山의 벽에 시를 지어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 雙漸과 豫章에서의 만남을 약속한다. 과거시험에 합격한 雙漸은 蘇卿이 馮魁에게 팔려 간 것을 알게 되고 金山의 벽에 쓰인 蘇卿의 시를 보고 만감이 교차하여 배 위에서 거문고를 뜬다. 부근 찻집에서 거문고 소리를 들은 蘇卿은 雙漸과 재회하고, 두 사람은 馮魁가 술 취한 틈을 타 도망간다.

리다 결국 馮魁를 따라 茶船에 몸을 싣는 모습을 표현했다. 제2곡인 [醉春風] 에는 馮魁의 간계가 나타난다.

[醉春風] 寂寞日偏長, 別離人最苦。把一封正家書改做詐休書, 馮魁不親是將我來娶, 娶。知他是身跳龍門, 首登虎榜, 想這故人何處? 적막한 날 유난히 길어, 이별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네. 집안 편지를 거짓 이혼장으로 만들어, 馮魁는 양심을 저버리고 나를 아내 삼으려 하네, 아내 삼으려네. 그이는 과거에 급제하여, 무과 장원이 되었을 텐데, 어디에 계시는지?

기녀는 거짓 이혼장을 만들어 자신을 아내 삼으려는 馮魁의 간계를 언급하며, 소식 없는 정인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표출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馮魁를 따라 떠나기 전, 사원 벽에 자신의 마음을 적는다.

[上小樓] 怕不待開些肺腑? 都向詩中分付。我這裏行想行思, 行寫行讀, 雨泪如珠。都是些道不出, 寫不出, 憂愁思慮, 了不罷聲啼哭。어찌 마음이 열리지 않으랴, 모두 시 속에 써 내려갔네. 나는 여기서 생각하고 그리워 하고, 글을 쓰다가 읽다가 하니, 진주 방울 같은 눈물, 비 오듯 흐르네. 말로 다 할 수 없고, 글로 다 쓸 수 없으니, 근심하고 생각하다가, 끝내지 못하고 흐느껴 우네.

눈물로 사원 벽에 글을 남긴 기녀는 소식 한 자 없는 입을 그리며 차 실은 배에 몸을 싣고 동오로 떠난다. [耍孩兒] 에서 기녀는 자신을 끌고 가는 상인을 “고금의 역사는 알지 못하고 장사만 아는, 골치 아픈 떠돌이(這廝不通今古通商賈, 是販賣俺愁人的客旅)”이며, “마소에게 옷을 입혀 놓은 쫓은 말(眞乃是牛馬而襟裾)”이라며 무시하고, [三煞] 에서 이들과 함께 일을 도모해 자신을 팔아넘긴 기생 어미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표출한다.

[三煞] 娘呵你好下得好下得! 忒狠毒忒狠毒! 全沒些子母情腸肚。則好教三千場失火遭天震, 一萬處疔瘡生背疽。怎不教我心中怒? 你在錢堆受用,

撇我在水面上遭徒。어머니 정말 냉정하네요, 냉정해! 참으로 악랄하네요,
악랄해! 모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네요. 삼천장 불길이 하늘까지 진동
하니, 곳곳에 종기 나고 등창까지 생겼네. 어찌 속으로 분노하지 않으랴?
당신은 돈 더미 속에서 즐기면서, 나를 물가에 던져 고통받게 하는군요.

작가는 모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기생어미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면서
끝 곡 [尾] 에서 “나를 위한 이 눈물방울 언제나 마를까? 수심 어린 미간 언
제나 퍼질까?(比我這泪珠兒何日乾? 愁眉甚日舒?)”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고통
을 호소하고 인생을 한탄한다.

5. 나오는 말

이상으로 元代 기녀 작가의 詩와 散曲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원대 기
녀의 시는 유흥을 돋우고, 사랑을 고백하며, 상대를 일깨우는 내용이 주를 이
루고, 작품은 후대의 筆記나 詩話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다. 이 작품들은 이
전 시기 기녀들의 작품과는 달리 주동적이고 직설적인 어휘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작품의 창작 목적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등 시체가 가진 정형
성에서 벗어나 통속적 색채가 강하다.

원대 기녀의 산곡은 남성 작가가 지은 산곡에 비해 그 수량은 적지만 내용
이 풍부하였다. 그녀들은 가창자이자 창작자였기에 남성 작가들이 여성의 외
관 묘사에 치중한 것과 달리, 평범한 삶을 희망하는 기녀의 바람을 드러내고,
연회의 분위기에 맞춰 술을 권하거나 이별의 아쉬움을 표현하고, 또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는 등 비교적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였다.

원대 기녀들은 때로는 문인과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존재였지만,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웃음을 팔아야만 하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 따라서 시와 산곡에
서도 생존의 위협으로 인한 고뇌와 탄식이 잘 드러난다. 사랑의 고백으로 기
적에서 벗어나려 하고, 재기를 통해 유흥을 돋우며, 불합리한 사회상에 대한

분개심을 풍자를 통해 분출한다. 원대 기녀 작가의 詩와 散曲은 이처럼 작가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슬픔과 절망감이 꾸밈없이 표현되어 있다. 이는 당시 기녀들이 이민족 왕조의 통치로 소외된 문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이때 문인들의 심적 공허함은 통속적이고 풍자적 언어로 주로 표현되었는데, 이들과 함께 했던 기녀들의 작품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편폭의 제한으로 우선 원대 기녀 작가의 시와 산곡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주제를 살펴보았다. 이들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향후 원대 규수 작가와 남성 문인들의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參考文獻

- 구우·이정·소경침, 『전등삼중(상)』, 서울: 소명출판, 2005.
- 권응상, 『멀티 엔터테이너로서의 중국 고대 기녀』, 서울: 소명출판, 2014.
- 마르코폴로·채의순역, 『동방견문록』, 서울: 을유문화사, 1978.
- R.H. 반홀릭·장원철 옮김, 『中國性風俗史』, 서울: 까치, 1993.
- 이수웅, 『中國娼妓文化史』,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7.
- 권응상, 「송대 기녀문인과 그 문학사적 성격」, 『중국어문학』 53권, 영남중국어 문학회, 2009.
- 陳東原, 『中國婦女生活史』, 臺北: 臺灣商務, 1994.
- 陳 衍, 『元詩紀事』, 上海: 商務出版社, 1925.
- 黃雪篔輯, 『青樓集』, 北京: 中華書局, 1985.
- 梁乙眞, 『元明散曲小史』, 北京: 商務印書館, 1998.
- 沈祥源編著, 『宋元文學史』,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09.
- 齋藤茂著·申荷麗譯, 『妓女與文人』, 北京: 商務印書館, 2011.
- 隋樹森, 『全元散曲』, 北京: 中華書局, 1981.
- 陶宗儀撰·李夢生校點, 『南村輟耕錄』,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 張豫章, 『御選宋金元明四朝詩·御選元詩』, 清內府, 1709.
- 趙義山, 『元曲鑒賞辭典』, 北京: 商務印書館, 2012.
- 吳庚舜·呂薇芬主編, 『全元散曲廣選·新注·集評』,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2000.
- 許嘉璐主編, 『元史』,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 俞爲民·孫蓉蓉主編, 『歷代曲話彙編-新編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唐宋元編)』, 合肥: 黃山書社, 2006.
- 熊篤, 「論元散曲中的青樓詞兼論元代妓女特點」, 『重慶工商大學學報』 第24卷 5期, 2007.

Abstract

A Study on the Themes of Poetry and Sanqu by Prostitute Writers in the Yuan Dynasty

Yun, Hye Ji · Kim, Young Mi

In the Yuan Dynasty, there were many prostitutes with excellent literary talent, and some of them created their own literary works. Those works are containing the life joys and sorrows of prostitutes in the Yuan Dynasty, so they are not only important data in the cultural history, but also that they have been alienated in Chinese literature as they are scattered here and there, which requires the researchers' interest. Especially, in the Yuan Dynasty, the talented prostitutes had many chances to exchange with gentry officials.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folk literature, the conventional expression was allowed, so the prostitutes could become the literary creators in various genres. This thesis, first, briefly understood the contents and themes of poetry and Sanqu by prostitutes in the Yuan Dynasty. The main theme of those works is life joys, sorrows, despair, and lamentation of prostitutes. With the use of conventional and blunt words, the purpose of creation is clearly shown.

Key words : Yuan Dynasty, female writer, prostitutes, poetry, sanqu

투 고 일 : 2021. 10. 10. / 심 사 일 : 2021. 10. 15.~ 2021. 11. 15. / 게재확정일 : 2021. 11. 20.

